20세기의 낡은 교육을 넘어서

오늘날 광범위하게 제도화된 제도예술은 재료와 매체를 다루는 기술과 장르적 규범을 축으로 움직여 왔다. 특히 우리사회의 예술교육과 예술현장은 이와 같은 기술주의와 규범주의에 의해 완고하게 경직되어 있으므로 창의적사고와 상상력이라는 예술 고유의 매력을 상실했다. 예술교육은 재료와 규범적 기술 위주의 교육이 아니다. 자연- 사회- 집단- 개인간의 관계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사유하고 표현하며 감수성과 상상력을 도야하는 교육으로 재편되어야 한다.